

“퓨처켄 3분기 실적 발표” 누적 매출액 전년비 29% 상승

- ▶ 기술이전 계약금 수령과 피디뷰와 알자뷰의 매출 성장세 이어져
- ▶ 연내 임상 1상 마무리... 미국 임상 1상/2a상 IND 신청 계획

<2021-11-15>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퓨처켄(220100, 대표이사 지대윤)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.

퓨처켄은 이번 3분기에 매출액 22.7억 원, 영업이익 -21억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은 6% 감소하였고, 영업손실은 지속됐다.

3분기까지의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은 83.8억으로 전년대비 29% 증가하여, 3분기 누적 기준 현재까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. 주요 원인으로서는 기술이전계약으로 인한 계약금 수령과 주력 제품인 피디뷰와 알자뷰의 매출이 작년 3분기 누적 대비 각각 39%, 48% 증가하며 주요 방사성의약품 매출 또한 성장세를 이어갔다.

퓨처켄은 R&D 부문에서 전립선암 진단제 및 치료제의 국내/외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 인력 확대는 물론 생산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의약품 연구 집중 및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다.

퓨처켄 관계자는 “전립선암 치료제 FC705의 중간 결과 발표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만큼 치료제의 성공 가능성 및 기술이전 계약으로의 모멘텀을 확보했다”며 “빠른 시일 내에 치료제 임상 1상을 마무리 짓고 임상 결과를 토대로 연내 미국 FDA 임상 1상/2a상 IND를 신청할 예정이다”이라 밝혔다.

한편, 최근 대한핵의학회에서 발표된 퓨처켄의 전립선암 치료제 FC705는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.